

4 뉴스

전공과목 잔여석 '0' 수강신청 문제 반복

김서희 기자 smile965@khu.ac.kr

매학기 반복되는 수강신청 문제는 이번학기에도 이어졌다. 특히 ▲문과대학(문과대) ▲영어영문학과(영문과) ▲응용영어통번역학과(응통과) ▲예술디자인대학(예디대) ▲디지털콘텐츠학과(디콘과) ▲응용과학대학(응과대) ▲응용화학(응화과) 학생들이 큰 혼란을 겪었다.

3학년 수강신청일이었던 지난 2월 7일, 영문과와 응통과에서 타학년 전공과목의 잔여석이 열리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 수강신청이 시작됐는데도 잔여석이 모두 0으로

표시된 것이다.

그러나 해당 오류에 대한 공지는 없었다. 일부 학생들이 문과대 행정실로 문의하자 그제야 문과대 행정실 측은 “입력 상의 오류가 있었다”며 “전학년 수강신청일에 신청하라”고 답변하는 데 그쳤다.

우리신문은 문과대 행정실과 취재를 진행했지만, 문과대 행정실 측은 “어느 학과에서 발생한 사안인가”라고 되물으며 “현장 사진이 있거나 과목명을 말해주야 답변을 줄 수 있고, 이에 대해 확인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문과대에 수강신청 오류에 대한 원인을 재차 질문했으나 문과대 행정실은 답변을 내놓

지 않았다.

다전공 수강신청 날이었던 지난 2월 9일, 예디대 디콘과에서는 대부분 전공과목의 잔여 인원이 열리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 해당 문제는 다음날에도 이어져 전학년 수강신청에도 차질을 빚었다.

디콘과의 경우 학년별로 수강인원이 배정되는 것이 아니라, 수강신청 첫날부터 모든 여석이 열리게 된다.

4학년이 신청한 뒤, 남은 인원을 3학년이 신청하는 식이다. 이에 가장 마지막에 신청하는 다전공생에게 배정되는 인원에는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익명을 요구한 디콘과 다전공생 A씨는 “다전공제도를 승인해 줬다면, 그에 따른 잔여석과 관련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다전공생을 위한 잔여석이 따로 마련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디콘과 사무실은 “다전



디지털콘텐츠학과 사무실 (사진=대학주보 DB)

공생이 정정기간에도 수업을 신청하지 못할 경우, 교수님께 (다전공생) 최대한 반도록 요청할 예정”이라며 “다음학기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원을 조정하는 등 여러 개선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응과대의 응화과에서도 동일한 상황이 벌어졌다. 일부 전공과목에서 다전공생을 위한 잔여 인원이 하나도 남지 않았던 것이다.

응과대 행정실은 “교수님의 요청

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수업의 잔여 인원을 4학년 수강신청일에 모두 열게 됐다”며 “그 과정에서 담당자가 다전공생의 잔여 인원 배정을 놓친 것 같다”고 잔여 인원이 남지 않았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정정기간에 추가 잔여석이 열리는 것을 이용해 다전공생이 수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는 다전공생에 대한 배려가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수강신청 관련 문제는 매학기 이어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이다. 지난해 9월에는 호텔관광대학과 문과대 소속 학과의 전공과목 여석이 풀리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으며 지난해 3월에는 디콘과의 수강정원이 크게 부족해 학생들이 수강신청에 난항을 겪은 바 있다. (관련기사: 수강신청 고충 겪는 디지털콘텐츠학과/대학주보 제1691호 (2022.10.12.))

농구·야구 2023년 준비 완료

최예령 기자 herry2020@khu.ac.kr

지난해 뛰어난 활약을 보여준 농구부와 야구부가 '2023 KUSF 대학스포츠 U-리그(U-리그)' 개막을 앞두고 있다.

농구부는 ▲2022 U-리그 3위 ▲2022 U-리그 플레이오프 4위 ▲제38회 MBC배 전국대학농구상주대회 3위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2위 ▲2022-2023 프로농구 신인드래프트 4명 프로 진출 ▲6년 만의 1라운드 진출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농구부는 특히 박민채(스포츠지도학 2019, 서울 삼성 썬더스), 고찬혁(스포츠지도학 2020, 안양 KGC 인삼공사) 선수가 각각 U-리그 최초 두 자릿수 어시스트(평균 어시스트 10.1개)와 득점 순위 2위(평균 21.2점)를 기록하며 개인 기록에서도 빛을 발했다.

2023 시즌에서도 좋은 결과를 이어가기 위해 농구부는 40여 일 동안 전라남도 여수에서 전지훈련을 진행했다. 올해 농구부는 “빠른 농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김현국 감독은 “작년에 많은 선수들이 나가고 올해 새로운 선수들이 들어와 다시 구성된 팀의 조화를 맞추는



제77회 전국대학야구선수권 대회에서 12년 만에 우승한 야구부가 2023년 시즌을 위해 준비 중이다. (사진=야구부 제공)

게 중요하다”며 “현재 센터가 없기에 외곽에서 좀 더 빠르게 공격하고 슛을 던질 수 있는 농구를 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어 “위낙 선수가 없다 보니 에이스의 존재보다 모든 선수가 자신의 베스트를 다 할 수 있도록 지도 중”이라고 밝혔다.

농구부 주장 황영찬(스포츠지도학 2020) 선수는 “새롭게 선수들과 합을 맞추고 작년과 달리 좀 더 빠른 농구를 접하다 보니 적응도 어려웠고 부족한 부분도 있었지만, 지금은 많이 채워졌다”며 “경희대가 작년에 비해 약해졌다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3·4위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주장으로서 동료들 앞에서 절대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면서 “팀을 위해 헌신하며 뛰겠다”고 주장으로서 다짐을 덧붙였다.

야구부는 제77회 전국대학야구선수권 대회에서 12년 만에 우승하며 새로운 역사를 써냈다. 이들은 성공적인 도약을 예고하며 경상남도 남해, 전라남도 순천 등에서 40여 일간 훈련을 이어왔다.

올해부터 우리학교와 함께하게 된 야구부 김휘중 코치는 “체력적·기술적인 부분에 중점을 두고 훈련했다”며 “아직 야수들의 타격감이 100% 올라오지 않아 앞으로 타격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우리학교에는 좋은 투수진들이 있다”면서 “U-리그에서의 좋은 결과뿐만 아니라 왕중왕전 우

승을 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덧붙였다.

야구부 주장 박성역(스포츠지도학 2020) 선수는 “제구와 경기 운영에 비해 볼 스피드가 부족해 구속 향상에 초점을 맞춰 훈련했다”며 “좋은 선후배 분위기로 더 재미있게 훈련하며 올해도 좋은 성적을 내는 팀으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포부를 드러냈다. 또 지난해 개인 성적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내며 “이번 시즌에는 더 잘 준비해 보겠다”는 개인적인 목표도 전했다.

한편, 우리학교 농구부는 3월 13일 명지대와 국제캠퍼스 선승관에서, 야구부는 4월 6일 중앙대와 흥천 야구장에서 2023 U-리그 첫 경기가 예정돼 있다.

양 캠퍼스 중앙동아리 박람회 개최

정성희 기자 keykeys923@khu.ac.kr 정예은 기자 yegold@khu.ac.kr

중앙동아리 박람회가 양 캠퍼스에서 대면으로 열렸다. 국제캠퍼스(국제캠)는 지난 3월 7일부터 9일까지, 서울캠퍼스(서울캠)는 지난 3월 8일부터 9일까지 진행됐다. 국제캠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3년 만의 대면 개최다.

국제캠 중앙동아리연합회(중동연)와 서울캠 총동아리연합회(총동연)가 캠퍼스별로 주관한 이번 박람회에는 서울캠 총 31개, 국제캠 총 28개의 동아리가 참여했다. 각 동아리의 다양한 이벤트, 버스킹 공연과 함께 캠퍼스 스탬프투어도 운영됐다. 국제캠에서 스탬프투어에 참여한 나혜림(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 2022) 씨는 “학교 생활이 시작된 것 같아 설렌다”고 말했다.

이에 국제캠 중동연 이인건(태권도학 2019) 부연합회장은 “학교가 정상화됨에 따라 위축돼 있던 동아리들의 홍보와 행사가 활발히 이뤄지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서울캠 총동연 조현이(경영학 2018) 회장은 “서로가 존중하고 배려하는 상황 속에서 진행돼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